

“車 100만대 생산도시 지원방안 곧 마련”

최경환 부총리·윤상직 장관 광주서 잇단 경제인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광주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을 수행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광주·전남지역 경제인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혁신과 도전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문화전당이 문화콘텐츠로 딱 채워진다면 광주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표명했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자 최 부총리는 “지난주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선정을 축하한다. 본격적인 추진방안 연구를 시작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관계가 안정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자동차산업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 “광주는 문화콘텐츠 중심의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핵심유망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역산업에 대해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이 해당 지역 대학생들의 채용을 늘려달라는 요청에는 “채용 실적을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채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

데 한여름 웃을 입고 있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리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를 성토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본 뒤 “내년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공간이 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지역희망박람회를 주관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후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과 함께 광주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주력”을 주제로 지역 중소기업 수출 간담회



문화전당 은 최부총리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가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지역경제인 간담회’를 열었다. /김진수기자 jeans@

■ 최 경제부총리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역채용 경영평가 반영”

■ 윤 산업부 장관
“FTA 타결 中수출 활력 광주·전남 전진기지 육성”

를 개최했다. 윤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광주·전남이 대 중국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역 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우리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 관세사 제도를 정비하고, 수출에 있어 어떤 부분에서 관세가 더 유리한지 조사하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기업인이 전남의 주요 수출품인 친환경·유기농 자재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요청하자 윤 장관은 “적극적인 검토는 물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동석한 김 위원장이 “정부부처를 초월한 대책이 나오려면 여러분의 요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하자 또 다른 기업인은 “친환경 바이오 제품임에도 국내에서 등록 코드는 화학(chemical)으로 분류돼 외국 바이어들이 성분에 대해 검증을 거친다”며 코드 분류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소비 꼬드기는 현대사회 통렬한 비판



(94) 블랙 프라이데이



비바라 크루거 작 ‘나는 쇼핑한다’

미국의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 주였고, 그 세일 기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다닌다. 우리나라 쇼핑객들도 덩달아 들쭉이더니 눈 밝은 친구들은 비스킷 한 이름의 ‘블랙 데이’ 할인 행사에서 ‘득템’했다고 자랑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산다’는 행위는 곧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일 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추구하는 많은 욕망의 대상은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에 의해 교환 가치가 매겨져 있어 소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념미술가이자 사진작가인 비바라 크루거(1945~)는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I Shop therefore I Am)’(1987년 작)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꼬드겨지고 내몰리는 현대사회를 비판했다. 인간 이성을 존재의 근거로 정의한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1596~1650)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지만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고 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사진과 텍스트를 결합하는 독특한 예술형식을 통해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과 사회제도적 권력에 항거해 왔다. 특히 사진을 찍기보다는 잡지와 브로슈어로부터 사진을 골라내어 작업한 뒤 표어나 광고의 헤드라인과 같이 간략하면서 집중력 있는 글을 사진에 덧붙여 일순간 대중의 눈을 사로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데카르트의 사유를 빌려 통렬한 비판적 패러디를 보여 주었던 작가는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1982년), ‘당신의 편안함이 나의 침묵이다’(1984년), ‘당신의 몸은 전쟁터다’(1989년) 등 주요 작품을 발표했다. 작가의 작품 역시 뛰어난 수사적 형상이나 힘 있는 메시지로 대중문화와 광고 이미지에서 빈번히 패러디되니 역설적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신뢰 회복 첫단추” “뺨 칼 다시 칼집에 꽂는 용기”

與, 野지도부 릴레이 극찬

새누리당은 3일 이례적으로 야당 지도부를 극찬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전남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범정시한 내 통과시킨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김부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12년 만에 이뤄진 범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민 신뢰 회복의 첫단추를 꿰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예산안 범정시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약속을 지킨 새정치연합 문희상, 우윤근 등 지도부에도 감사 드린다”며 “이제 예산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가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구 원내대표도 “격제지감을 느끼게 한다”며 “야당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예를 갖췄다. 호남 출신인 이정현 최고위원의 찬사는 더욱 화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이, 최근에 새 지도부, 특히 문희상·우윤근·안규백·백재현이 분투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역할 수행은 크게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덕장으로서 또 지장으로서 손색이 없었지만 용장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다”며 “칼을 뺐다가 쓸 일이 없으면 호박을 자르지 않고 다시 칼집에 꽂는 용기를 지금 야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최고위원은 또 “바로 저런 야당이 가장 무서운 야당”이라면서 “지금처럼 야당이 국정에 협조한다면 정부 여당은 더 긴장하고 촉각을 세워서 국정을 운영해야 야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엄살을 부리기까지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실세 예산’ 챙기기 올해도 여전 여야 지도부 지역구 민원성 예산 줄줄이 증액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올해도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원구 원내대표의 경우 청양~신양 IC 국지도건설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5억원이 증액됐고, 보령~부여 국도건설에도 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의성에서는 하천정비를 위한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12억원에 국회 심사로 10억원이 더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경북 경산·정도에서는 세계코미디 예술제를 위해 4억원이 증액됐다.

‘호남 예산폭탄’을 공언했던 이정현 의원 지역에서는 순천·광양·여수 지역 기화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첫 설계비 25억원이 반영됐고, 순천 의대 유치와 관련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우윤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광양 중마금호 해상

공원 조성 사업에 10억원이 보태졌고,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 10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를 살펴보면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에도 20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백재현 정책위의장 지역구인 광명시에서는 아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10억원 늘었다.

여기에 일부 여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도 지역구 사업을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결위 여야 간사가 쫓지 예산 근절 원칙을 밝히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음성적인 관행을 통해 민원성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증액 등의 방법을 통해 힘 있는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됐다”며 “그래도 예전 같은 쫓지 예산 관행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언하고 나선 뒤로 중주국의 개와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기 기본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애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